투어 번호
LK8NFGQHZR

제프리 바와 인상 (5일)

5일 · 4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5일 투어는 스리랑카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 Geoffrey Bawa의 작업과 영향을 따라 섬의 중부 산악 지역, 남해안 및 수도를 거닙니다. Kandy의 Temple of the Tooth Relic에서 시작하여 Bentota와 Galle로 이동하며, 여기서 Bawa의 여러 호텔 설계와 그의 개인 저택을 볼 수 있으며, Colombo의 그의 개인 주택 중 한 곳에서 끝납니다.

여행객들은 Bawa의 경력 전반에 걸쳐 그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봅니다. 수십 년에 걸쳐 형성한 Lunuganga의 실험적 정원에서부터 Bentota와 Ahungalla의 리조트 호텔, 그리고 Colombo에서 한 조각씩 지어올린 타운하우스까지 말입니다. 이와 함께 투어 경로는 Bawa의 작업보다 수 세기 앞선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도시인 Galle Fort를 포함하여, 그가 섬의 식민지 건축과 토속 건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이 투어는 공항에서 공항으로 진행되는 개인 여행으로, Kandy에서 남해안을 거쳐 Colombo로 돌아가며, 이러한 건물과 정원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건축과 디자인에 관심 있는 여행객들에게 적합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캔디

첫날은 공항에서 캔디로 이동하여 스리랑카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불교 사원을 방문합니다.



불치사(佛齒寺)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사원은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보관하고 보호하기 위해 16세기에 세워졌습니다. 사원은 거의 전체가 목재로 지어졌으며, 곳곳에 조각된 기둥, 보, 서까래, 문틀이 남아 있고, 팔각형 기둥 받침 위에는 네 잎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빨강, 크림색, 검정으로 칠해진 통로를 지나며 금빛 불상과 정교하게 조각된 기둥들을 둘러보게 됩니다.

A.Savin · FAL

Day 2 캔디 → 벤토타

둘째 날은 남쪽 벤토타로 이동하여, 제프리 바와가 직접 가꾼 전원 정원과 그가 설계한 호텔 중 한 곳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루누간가 에스테이트

변호사에서 건축가로 전향한 제프리 바와가 1947년부터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며 자신의 전원 저택으로 삼은 곳으로, 이 작업이 그를 건축의 길로 이끈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1998년 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경력 내내 이 정원과 그 구조물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실험했습니다. 2003년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루누간가 트러스트에 기증되었으며, 현재는 일반에 공개되어 건물들이 컨트리하우스 호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co2004 · CC BY-SA 4.0

아바니 벤토타 리조트 & 스파

제프리 바와가 설계한 이 디자이너 호텔은 스리랑카의 한 해변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도양을 마주한 객실과 스위트룸은 단 75개뿐입니다. 전통적인 환대와 국제적 수준의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어, 해변에서의 휴식과 주변 관광 모두를 위한 거점이 되어 줍니다.

Day 3 벤토타 → 갈레 → 미리사

셋째 날은 해안을 따라 갈레까지 이동하며, 바와가 설계한 또 다른 호텔들과 옛 요새 도시를 둘러봅니다.

헤리턴스 아훈갈라 호텔

갈레 근처 어촌 마을 아훈갈라에 위치한 이 5성급 해변 호텔은 제프리 바와가 설계했습니다. 개방형 로비에서는 인피니티 풀이 바다까지 이어지는 긴 전망이 펼쳐지며, 널찍하고 트인 설계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호텔의 숲으로 둘러싸인 정원은 햇빛을 피할 그늘을 제공합니다.

제트윙 라이트하우스

바와가 설계한 또 다른 호텔로, 옛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도시인 갈레 외곽에 자리한 5성급 숙소입니다. 바와 특유의 품격과 고전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열대 지역 체류에 걸맞은 서비스와 다이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갈레 요새

포르투갈에 이어 네덜란드의 거점이었던 갈레 요새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해양 박물관, 갈레 국립 박물관, 등대를 둘러보며, 옛 네덜란드식 이름을 여전히 간직한 자갈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4 미리사 → 콜롬보

넷째 날은 콜롬보로 돌아와 바와가 좁은 도심 부지 안에서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살펴봅니다.

33번가 33번지

이 집은 건축적 재구성의 결과물입니다. 1958년 바와는 짧은 막다른 골목에 늘어선 네 채의 작은 방갈로 중 세 번째 집을 사들여, 거실과 침실, 작은 주방, 하인용 방을 갖춘 아담한 집으로 개조했습니다. 이후 네 번째 방갈로를 추가로 매입해 식사 공간과 두 번째 거실로 삼았으며, 그로부터 10년 뒤 남은 방갈로들까지 사들여 첫 번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4층짜리 타워를 세웠습니다.

Day 5 콜롬보 → 공항

마지막 날은 느긋한 아침을 보낸 뒤 체크아웃하여 공항으로 이동, 귀국 항공편에 탑승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cost of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Except for Credit Card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Entry Visa Fees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